

24. 이웃나라와 친하게(4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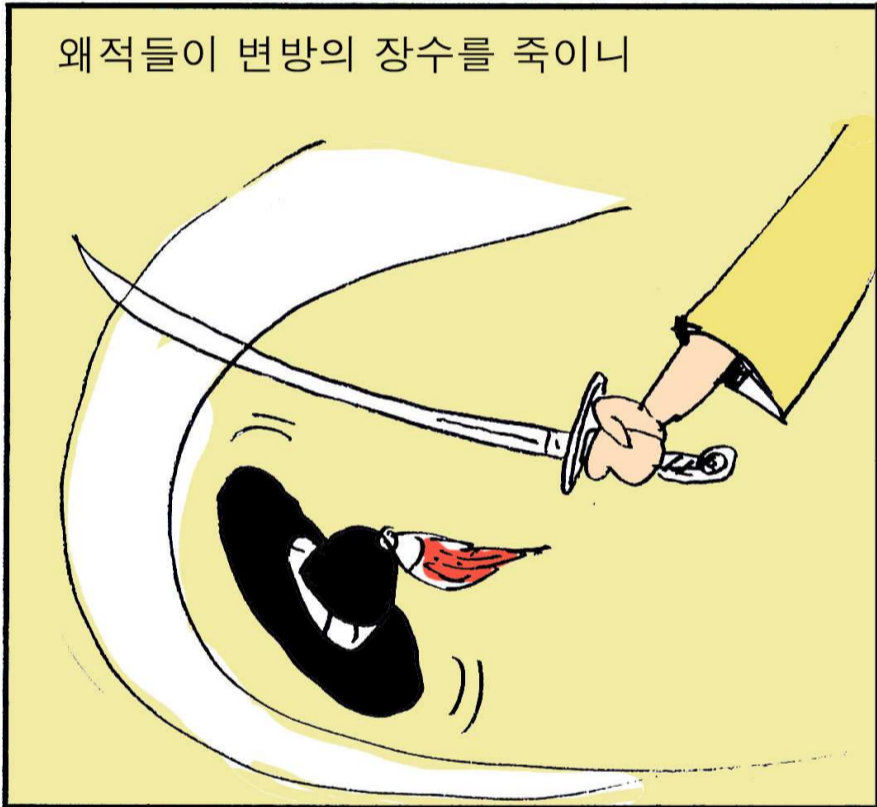
걸물절왜사소乞勿絶倭使疏를 올리다

*걸물절왜사소 : 왜적을 용서하고
수교를 해야 한다는 청원서

지난 경오년에 삼포(부산포, 염포, 제포)의
왜적들이 난을 일으켰다.



왜적들이 변방의 장수를 죽이니



조정에서는 군대를 보내 토벌하고 왜와는
절교하였다.



이때 왜인이 여러 차례 강화하기를 애걸하였으나



조정에서는 지난 일 때문에 매번 거절했다.



그러나 퇴계의 생각은 달랐다.

왜인들이 이를 빌미삼아 싸움을 일으킬 수도 있다.



퇴계는 동료들에게 같이 상소문을 올리자고 하였으나

난 빠질라네.

나도



모두 거절해 혼자 올리게 된 것이다.



일본과의 화친 제의를 받아 그들과 교역을 터야 합니다. 그것만이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후환을 없애는 길입니다.



안그래도 북쪽은 오랑캐(여진족)들이 자주 침범해 오는데

꼭고!



일본의 화친 제의마저도 거절한다면

꺼져 임마!

너무하므니다!



